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유형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

박 창 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추진하는데서 외국어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언어지식전수일면에만 치우치던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언어지식과 함께 그 활용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외국어교수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나가는것이다. 특히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의 활용능력을 높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과제들을 적극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을 완성해나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먼저 과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는것이 선결조건으로 나선다.

외국어교수에서의 과제는 외국어교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며 외국어교수의 목적에 의하여 그 본질이 규제된다.

외국어교수의 근본목적은 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으며 이로부터 외국어교수에서의 과제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연습활동으로 된다.

외국어에 대한 지식은 크게 어휘와 문법, 어음을 구성요소로 하고있으며 그 활용능력은 읽기기능, 듣기기능, 말하기기능, 쓰기기능을 4대구성요소로 하고있다.

외국어교수에서의 과제는 기능습득의 목적에 따라 읽기과제, 듣기과제, 말하기과제, 쓰기과제, 난도에 따라 초급과제, 중급과제, 고급과제로 분류할수 있다.

모든 유형의 연습활동들은 일정한 사고활동을 통하여 진행되며 사고활동은 일정한 대상에 사고를 집중하는것으로 시작된다.

언어에서 의미는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로 나눌수 있다.

어휘적의미는 어휘에 의하여 실현되고 문법적의미는 어순이나 보조어, 접사와 같은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실현되며 문법적수단은 일정한 형태로 발현된다. 문장론적으로 대부분의 어휘들은 자체의 어휘적의미와 함께 일정한 형태에 의하여 실현되는 문법적의미를 가진다.

학생들은 기능별과제이든 난도별과제이든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서 형태와 의미에 사고활동의 초점을 두게 된다. 사고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활동의 방향과 그 성과여부가 결정된다.

학생들의 모든 연습활동은 인식을 목적으로 하며 연습활동은 곧 학생들의 인식활동으로 된다. 따라서 인지적측면에서 외국어교수에서의 과제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습득하는 인식활동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외국어습득을 위한 인식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형태구조와 의미를 둘러싸고 각이한 견해와 주장들이 제기되였다.

의미를 1차로 주장한 어느 한 언어학자는 자기의 저서 《응용언어학의 적용》(“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형태보다 의미를 더 중

시하는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며 이로 하여 사람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그리고 빨리 피진어들을 창조할수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물론 언어사용의 근본목적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견해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교육학적측면에서 보면 언어교수과정에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제들에서 형태구조는 홀시하고 의미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과학성을 최대로 담보해주어야 하는 교수의 근본목적을 원만히 달성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의사소통위주의 외국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과제수행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보고 잘 알수 있다. 종전의 형태구조위주의 외국어교육으로부터 의사소통위주의 교육으로 혁신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특히 입말과 듣기기능을 키워주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런 류형의 과제들에서는 형태구조보다 의미전달이 기본목표로 설정되기때문에 류창성과 발음, 어휘활용이 기본습득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문법적정확성은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수, 시칭 등의 사용에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그것을 큰 오유로 간주하지 않게 되며 결국 이런 류형의 오유들이 거의 관습적인 현상들로 굳어져 정확한 언어지식과 활용능력을 습득하는데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반대로 형태구조를 1차로 주장한 어느 한 언어학자는 자기의 저서 《기능과 구조와 언어습득》(“Function, Structure a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만약 형태구조가 홀시되고 의미만 우선시된다면 학생들에게 자연적이며 우연적인 언어습득방식을 주입시키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언어교육 그자체가 무의미할것이며 학생들이 해당 외국어를 완전무결하고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견해는 형태를 떠난 의미란 있을수 없으며 의미를 배제하는 형태란 있을수 없다는 형태-의미의 불가분리의 관계에 기초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형태와 의미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태구조를 중시하면 의미전달기능이 저절로 형성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태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학생들속에서 문법적으로 너무 복잡한 형태구조를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며 언어사용의 근본목적인 의사소통능력키우기에 일정한 저애를 주게 될것이다.

이것은 형태구조위주의 외국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의사소통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것을 보고 잘 알수 있다. 형태구조위주의 외국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리론적인 언어 지식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지만 실천적인 언어활용의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다. 이것은 형태구조위주의 교육에서 형태구조를 단지 지식으로만 전수하고 의미해석과 전달기능을 체득시키는 사업을 병행시키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형태와 의미는 서로 통일되어있는것만큼 외국어교수에서는 형태와 의미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통일시켜 학생들이 사고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수에서 과제를 형태구조를 얼마만한 정도로 적용할것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비제한과제, 반제한과제, 제한과제로 분류할수 있다.

비제한과제란 특정한 형태구조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과제로서 그 목적은 학생들을 자동언어습득환경에 최대한로 접근시키자는데 있다. 학생들은 이런 류형의 과제수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형태구조자원을 최대한로 동원하게 되며 또한 언어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지식차를 줄일수 있게 된다.

반제한과제란 일정한 형태구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내용구조도 능히 적용할수 있는 과제로서 그 목적은 자동언어습득환경과 외국어교수환경을 적절히 배합하자는데 있다. 학생들은 이런 류형의 과제수행을 통하여 전수된 형태구조를 지식과 적용방법의 측면에서 다같이 습득할수 있게 된다.

제한과제란 특정한 형태구조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로서 그 목적은 형태구조와 의미기능을 결합시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교수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원만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주자는데 있다.

학생들은 이런 류형의 과제수행을 통하여 적합한 형태구조를 적용하여 해당 정황과 문맥에 알맞는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전달기능을 체득하게 된다.

실례로 어느 한 책상의 서랍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그 책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추리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양태조동사들을 쓰게 된다. 따라서 교원은 일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정황에 맞게 학생들이 지정해준 특정한 문법구조를 적용할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줄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해당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구조에 주의를 돌리고 활용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결국 셋째 류형의 과제가 학생들의 창조적사고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켜 인식활동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과제로 된다. 여기서 교원은 학생들이 일정한 형태구조를 리용하도록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떤 형태구조가 요구되는가를 학생들스스로가 포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의 과제수행을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어교수에서 진행되는 과제는 크게 과제설계와 조종, 평가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언어사용방식과의 비교단계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인식의 주체인 학생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그들이 창조적인 사고활동을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로 모든 단계의 활동들을 지향시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과제수행과정에 학생들속에서 나타나는 일부 오류들에 대하여 교원이 지적하고 퇴치해줄것이 아니라 학생들스스로가 오류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수정하도록 하여 지식과 활용능력을 학생들자신의것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과제설계에서 종합화, 실용화, 현대화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과제설계에서 종합화, 실용화, 현대화를 구현한다는것은 학생들이 언어의 4대기능을 종합적으로 습득하여 강성국가건설에 실지로 이바지할수 있는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신언어자료들로 과제를 작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자면 학생들의 수준과 그에 따르는 능력을 철저히 고려하여 목표와 난도에 따르는 과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둘째로, 학생들의 창조적사고능력을 계발시킬수 있게 과제수행을 조종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과제수행을 조종한다는것은 학생들이 과제수행의 주인이 되어 창조적인 사고활동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과제수행에 피동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을 보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있거나 취미가 별로 없어 하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교원은 이런 부류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교원이 직접 해당 학생의 역도 수행하면서

학생이 모르고있던 문제를 학생스스로가 포착하고 원리를 파악할수 있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셋째로, 학생들이 오유의 원인과 결과, 수정방법을 원리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과제수행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사업에서 교원이 주동적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의 과제수행에 대하여 서로 교차평가를 진행하게 한 다음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해주는것이다.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넷째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든 언어자료를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언어사용방식과 비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조선어가 언어학적으로 다른 언어들에 비하여 해당 언어와의 차이점이 많은것으로 하여 언어활용능력습득에서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만든 언어자료를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언어사용방식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를 보다 정확하고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어교수에서 과제의 난도설정문제를 비롯하여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어교수의 과학리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